

익산시, 여름철 위생해충 방역사업 확대

방역기동반 추가 편성 내달까지 야간방역 친환경 소독제 '가열 연무소독' 시행

익산시 보건소는 여름철을 맞아 말라리아와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등의 원인이 되는 모기성충과 유충 방제를 위해 방역을 확대 실시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 방역기동반 2개 반을 주·야간 4개 방역반으로 추가 편성에 하절기 집중 방역기간인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주 2~3회 다중이용시설, 민원 다발지역 등에 야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9개 읍·면·동에서도 자체 방역기동반을 운영해 취약지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익산시 방역소독 방식을 기존 경우에 살충제를 희석해 살포하는 '가열 연무소독' 대신 물에 살충제를 녹여 분사하는 '가열 연무소

독'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통·장 회의와 전광판 송출, 보도자료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해충유인 포충기를 11곳, 64대를 5월부터 가동하고 있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5곳(미륵산 2개소, 용화산, 함라산, 배산체육공원)에 진드기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가 소독을 통해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까지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방역장비(수동식분무기)와 방역약품 총 6종(살충제, 유충구제, 바퀴벌레약, 개미약, 살서제, 진드기기피제)을 신청자



익산시 보건소는 여름철을 맞아 모기성충과 유충 방제를 위해 방역을 확대 실시한다.

에 한해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한명란 익산시 보건소장은 "하절기 해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집중 위생해충방제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익산시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김천 포도·자두·복숭아 홍보

군산시, 자매도시 김천시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군산시의 자매결연도시인 김천시는 23일 시청 서문광장에서 김천에서 자란 포도·자두·복숭아 홍보 및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천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군산시민의 인지도제고와 알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제철과일인 포도·자두·복숭아를 군산시민들에게 좋은 품질로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가진 이번 행사에는 김천시시장(김충섭)을 비롯, 김천시의회의장(김세운), 시의원 그리고 김천시 농협시지부장, 김천자두연합회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역특산물 판촉행사에 구슬땀을 흘렸다.

교류행사 직거래장터를 방문한 김임준 군산시장 및 김경구 군산시의회의장은 "김천자두와 포도가 자매도시간의 끈끈한 정을 돈독히 하는 하나의 연결체라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에는 군산시가 김천시를 방문해 군산의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김천시 청광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 자매결연도시인 김천시는 23일 시청 서문광장에서 김천에서 자란 포도·자두·복숭아 홍보 및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군산 수산업 발전 2030계획 수립

23개 핵심과제 국가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공모 활용키로

자립도시 군산시는 다함께 잘사는 지역 실현을 위해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혁신발전 2030계획을 수립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수산인 단체 및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혁신발전 2030계획'을 수립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계획에는 민선 7기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바다의 힘! 다함께 잘사는 자립 어촌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군산 수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장기 발전계획을 확인했다.

또 수산업이 전통과 현산인주형 수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실천계획이 담겨져 있다.

시는 해양수산부 '수산혁신 2030' 계획과 전북도 해양수산발전계획과 연계해 군산시의 특성에 맞는 융복합의 6대 핵심전략, 분야별 8대 전략

과제와 도심어촌권·고군산권·북부섬권과 미래수산업 영역확대의 새만금권으로 특화된 4대 어촌개발권역으로 실천계획을 구성했다.

특히 지역수산업의 혁신발전을 위해 발굴한 23개 핵심과제에 대해 국가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공모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는 대표적인 항구도시로 어촌수산업은 우리 시 중요한 경제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돈이 되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 실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국제표준 IT자격 ICDL 취득과정 시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LINC+사업단 참여 학과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국제표준 IT 자격(International Computer Driving Licence) 취득과정 교육을 시행했다.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ICDL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국제 IT 자격으로써 UN, EC 등 국제기구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LINC+사업단 주관으로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한 이번 ICDL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최근 진행된 교육과정은 M3 워드프로세싱, M4 스프레드시트, M6 프레젠테이션, M7 웹 검색 및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수강생 중 3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교육을 마친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김해진 학생은 "방학 기간에 자기개발과 함께 앞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 ICDL을 수강하게 됐다"며, "유익한 교육 덕분에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자신감도 향상됐다"고 말했다.

송문규 LINC+사업단장은 "LINC+사업단에서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돕는 기회를 마련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력양성 및 특성화 분야에서 맞춤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식량작물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2개소 경영체 대상 전원 선정

자립도시 군산시가 잡곡분야 식량작물 공동(들녘)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잡곡분야 식량작물 공동(들녘) 경영체육성(시설·장비) 지원 공모사업에 2개소 경영체 대상으로 전원 선정돼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잡곡분야 식량작

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공동 영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5억 5,7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2개 경영체는 콤바인, 트랙터, 파종기 등을 지원받아 작년부터 시행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농기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운동용 군산시 부시장

폭염대비 안전취약지역 점검

운동용 군산시 부시장이 23일 급경사지 정비사업 현장과 무더위 쉼터 등을 방문해 본격적인 장마철과 폭염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했다.

윤 부시장은 지난해 호우 침수피해를 입었던 소룡동 지역과 창성, 송창 급경사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직접 살폈다. 이 자리에서 부시장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 예찰활동과 정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노사발전재단, 상생형 일자리 공론화 개최

고용위기지역 군산시가 상생형 일자리 공론화 과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시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의 지원을 받아 상생형 군산 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상생 협약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군산대학교 이노테크홀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론화과정은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군산일자리컨설팅사업단이 주관해 진행하며 군산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 13명을 비롯한 전문가, 청년/학생, 추천받은 관련시민 등 50명으로 구성해 시민들과 함께 속의를 거쳐 토론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신고리원전, 대입제도, 서울교육청 교복,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공론화 등의 다양한 공론화


기획 및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이번 공론화 과정은 군산지역 상생형 일자리 상생협약안 마련에 공론화를 통해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김현철 군산일자리컨설팅사업단장은 "공론화 토론과정은 특성별로 분임조를 구성하는 방식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시민을 혼재해 분임조를 구성하는 방식을 반복하며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 일지리의 핵심적 이슈를 정확히 파악해 공론화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보다 군산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생형 군산 일자리 공론화는 상생 모델에 대한 공감대와 수용성을 높여 다른 지역들이 일자리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도 귀중한 정책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